

금강산 관광의 담론분석 : 관광객의 시선과 자연의 정치적 동원

진종현(UCLA 대학원, metaphor777@hotmail.com)

이 논문은 "금강산관광"의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신)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현대그룹에 의해 금강산을 국제적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려는 야심찬 장기적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한반도의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의 여행은 한국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사였으며, 동시에 남북화해와 평화적 협력이라는 지정학적 변화를 상징한다. 18세기 진경산수화의 등장 이래 "민족적" 자연미의 상징으로서 예술적 재현의 주대상이었던 금강산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하나의 상상적 민족경관으로 재구성된다.

발표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금강산 관광에서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검토한다. 기존의 관광연구에서 가정되는 현대관광객의 "시각적 권능all seeing eye"은 심각하게 제약되며 이는 금강산관광의 경험을 보다 특수한 것으로 만드는 주된 요소이다. 금강산관광에서 관광객들은 자유로이 구경하고 사진찍을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개별화된 기억의 감각과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한다.

둘째, 금강산 관광은 민족의 신체정치 담론의 성적 은유(gendered body-politic of nation)의 변형을 고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화해시대이후 남북관계에서 흔히 남한의 남성성과 북한의 여성성이 대비된다. 남남북녀의 문화적, 비정치적 담론은 남한 기업권력의 힘에 기반해, 권력관계를 상징하는 민족적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로 격상된다. 북한여성관광안내원에 대한 미디어의 줄기찬 관심은 한 예이다. 이같은 성적인 재현은 북한내부의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상징적으로 해체한다는 점에서--남성성의 거세, 대상자체의 여성화라는 측면에서--7-80년대 남한 운동권의 관점--남한이 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여성의 이미지로 묘사되는--을 역전시킨다.

셋째, 이 논문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nature"이라는 이론적 테제에 기반한다. 이 논문은 자연의 순수한 이미지가 어떻게 정치적 담론으로 동원되고 재생산되는가를 검토한다. 자연경관의 신성성과 정치적인 민족담론의 연계에 있어 남과 북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남측의 (기존) 담론에서, 금강산의 자연미는 민족의 영원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자연의 순결함의 보존과 영원성에 대한 추구는 민족의 신성함에 대한 은유가 되며 자연상태를 "개조"하려는 북측의 시도는 민족의 자산을 훼손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금강산의 자연미는 "사회주의 파라다이스"의 선전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화된다. 양쪽 모두에서 자연은 신성시되지만 그 방식은 정반대이다. 남한에서 자연은 정치와 사회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정치적 담론에 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금강산관광은 금강산을 자연의 신성함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경합하는 정치적 경관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